

## Lectio Divina (거룩한 독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다.”**

1. 읽기(Lectio) - 마태 9,36-10,8

<sup>36</sup>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 복음의 출발점은 군중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는 표현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연민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보다 그들의 내면을 보십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향을 잃고 지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목자는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참된 목자이신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시는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sup>37</sup>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sup>38</sup>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 수확은 이미 하느님께서 일하고 계신 결과입니다. 복음선포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일꾼이 되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선포의 첫걸음은 활동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sup>10.1</sup>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셨다.

-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뒤 곧바로 파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권한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한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영들”은 인간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

는 모든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복음선포는 단순한 말의 전달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는 하느님의 일입니다.

**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sup>3</sup>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대오, <sup>4</sup>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 복음서는 열두 사도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어부, 세리, 열혈당원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특히 세리 마태오와 열혈당원 시몬은 원래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임을 보여 줍니다. 또한 명단 안에는 훗날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 이스카리옷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부르심이 인간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은총 때문임을 드러냅니다.

**5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sup>6</sup>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 예수님의 복음은 결국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지만, 먼저 하느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선포됩니다. ”길 잃은 양“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백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이를 다시 찾아 아버지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7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 이것은 예수님 복음선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늘 나라는 단순히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느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복음선포란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8 앓는 이들을 고쳐 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실제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일은 하느님 나라가 실제로 드러나는 표징입니다.

-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오늘 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사도가 되기 위해 돈을 내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자격으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 용서, 구원, 성령의 은총은 모두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받은 것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 2. 묵상(Meditatio) - 성찰 질문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견하셨습니다. 복음선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선포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거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거저 받으며 살아갑니까? 생명도, 믿음도, 가족도, 용서도, 성체성사도 모두 선물입니다. 복음은 받은 선물을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 질문

1. 나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2. 내가 지금 거저 받은 하느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3. 나는 받은 사랑과 용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4. 내 주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 잃은 양”은 누구입니까?
5. 나는 복음선포를 부담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은 선물을 나누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3. 기도(Oratio) - 자유 기도 예시

주님, 목자 없는 양들처럼 지쳐 있던 사람들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을 품으셨던 당신을 바라봅니다.

저희도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며 지치고 낙심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 많은 것을 거저 받았습니다.  
 생명도, 믿음도, 용서도, 사랑도 모두 당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받은 것을 나누기보다 움켜쥐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당신의 마음을 닮게 하소서.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 연민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상처 입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이 저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4. 관상(Contemplatio) - 하느님 안에 머무르기

예수님께서 군중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조용히 떠올립니다. 그분의 시선 안에는 판단이 아니라 연민이 있습니다. 그 시선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음을 느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말씀 안에 머무르며, 내가 받은 하느님의 선물들을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 5. 실천(Actio) - 삶 속에서의 결심

1. 감사의 실천 - 오늘 하루 내가 거저 받은 은총 세 가지를 적어 보기.  
 (생명, 가족, 신앙, 건강, 공동체 등)
2. 연민의 실천 - 비판하고 싶었던 사람 한 명을 위해 짧게 기도하기.  
 “주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3. 나눔의 실천 -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격려의 말 한마디, 감사의 표현, 작은 친절 하나 실천하기.
4. 복음선포의 실천 - 냉담 교우, 가족, 친구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주님, 그 사람에게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소서.”
5. 사명의 실천 - 하루를 마치며 묻기.  
 “오늘 나는 무엇을 거저 받았고, 무엇을 거저 주었는가?”